

| | | | | | | | |
|----|---|----|-----|----|-----|-------|----|
| 성별 | 남 | 나이 | 62세 | 직종 | 가공공 | 직업관련성 | 낮음 |
|----|---|----|-----|----|-----|-------|----|

1. 개요

이○○(만 61세)은 1984년 3월 선박제조업체인 X사에 입사하여 2010년 1월 퇴직까지 가공부서에서 26년간 근무하였다. 2010년 2월 퇴직 후 다른 직장 입사를 위해 A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검진에서 폐 이상소견 발견되었고 P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이○○는 34세인 1984년 3월 X사에 입사하여 2010년 1월 퇴직시까지 약 26년간 가공부서 절단업무를 수행하였다. 가공부는 주야간 교대작업을 하는 곳으로 1주 단위로 주야작업이 변경된다. 주간은 08~17시, 야간은 20시~05시까지이며, 초과근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였다. 절단작업자는 절단기를 이용한 절단작업 이외에 사상작업도 수시로 수행하며 녹방지를 위해 징크프라이머를 절단면에 터치업하는 도장작업도 일평균 1시간정도 수행하였다. 절단공장에서의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가스절단작업시 발생하는 산화철분진이며,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측정결과가 일부 있었다. 철판구성 성분을 보면 Cr과 Ni성분이 미량 포함되어있다. 작업공정상 발암물질노출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2010년 1월 퇴직 후 다른 직장 입사를 위해 2010년 2월 A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검진에서 폐에 이상 결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P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및 경피적세침흡인폐생검하여 비소세포 폐암 진단 받고 치료를 위해 4월 S병

원에서 흉곽경시술과 lymph node biopsy하여 cT2aN2M0 stage의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으로 확진되어 치료를 받았다. 과거력상 10여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받고 현재 혈압약 복용 중이다. 그 외 다른 특이 병력은 없다. 흡연력은 40세 이후 금연을 하였으며, 음주는 주당 1회에 소주 1병정도 마신다. 2003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제5요추 압박골절, 2008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우슬관절, 내측반월판 파열, 우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로 산재요양을 받았다.

5. 결론

이○○의 폐암은

- 약 26년간 가공업무에서 절단업무 수행 중 산화철흡을 포함한 중금속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연강 절단인 경우 발암성 중금속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 가공공정은 밀폐공정 작업은 아니며, 인근의 도장부서 등에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 절단작업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연구보고는 거의 없으며,
- 석면포 취급가능성도 낮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